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소셜 미디어 상향 비교와 양육능력불안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물질주의 가치관의 조절된 매개효과*

Impact of Social Media Comparisons on Marital Satisfaction among Mothers: The Role of Parental Anxiety and Materialism

1차원고접수: 2025.04.07. 수정원고접수: 2025.05.28. 최종게재결정: 2025.06.20.

박하연¹

¹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Park, Hayeon¹

¹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국문초록 이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소셜 미디어 상향비교 경험이 양육능력불안을 매개로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관계에서 물질주의 가치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8 ~ 2022년생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 34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한 매개 및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소셜 미디어 상향비교는 결혼만족도를 직접적으로 낮출 뿐 아니라, 양육능력불안을 매개로 간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물질주의 가치관은 양육능력불안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였으며, 물질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양육능력불안을 통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향비교의 부정적 간접효과가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소셜 미디어 사용 경험이 개인의 정서적 반응을 넘어 부부관계 만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양육 및 가족관계 지원을 위한 실천적 개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소셜 미디어, 사회비교, 양육불안, 결혼만족도, 물질주의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upward social comparison on social media among mothers of young children on marital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parental competence anxiety and the moderating role of materialistic value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340 mothers of children born between 2018 and 2022.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moderated mediat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PROCESS macro.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upward social comparison on social media had a direct negative effect on marital satisfaction and an indirect negative effect mediated by parental competence anxiety. Second, materialistic values significantl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competence anxiety and marital satisfaction. Specifically, the negative indirect effect of upward social comparison on marital satisfaction via parental competence anxiety was stronger among mothers with higher levels of materialistic valu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others' experiences on social media may influence not only their individual emotional well-being but also the quality of their intimate relationships. This study offers important implications for designing interventions to support parenting and family well-being in the context of digital media use.

Keywords social media, social comparison, parenting anxiety, marital satisfaction, materialis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결혼만족도는 개인의 전반적 삶의 만족은 물론 출산 계획, 양육태도, 이혼의도 등 가정생활을 예측하고 유

지하는 중요한 특성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만족도는 여성은 70.7%, 남성은 80.5%로 보고되어(통계청, 2024) 일반적으로 여성에게서 낮은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불균형에는 주로 가사와 양육 부담의 문제가 이유로 지목되는데, 영

* 본 논문은 2024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신진연구자 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to 박하연 (Park, Hayeon)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E-mail. hayeon@kicce.re.kr

Copyright © 2025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육아 자녀를 기르는 가족생활주기에서는 어머니가 주 양육자로서 높은 역할 부담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으며(김소영, 진미정, 2016), 양육 초창기의 역할과중으로 인해 어머니가 지각하는 결혼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을 가진다. 그리고 어머니의 낮은 결혼만족감은 잦은 부부 갈등을 동반함으로써 자녀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와 함께(Craft, Perry-Jenkins, & Newkirk, 2021),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김은희, 이완정, 2023; Didericksen, Edwards, Wetchler, & Walker, 2015)에서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선행 연구들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배우자 간 의사소통, 양육참여 등을 반복적으로 보고해 왔으며(서미정, 2017; Kanter, Lavner, Lannin, Hilgard, & Monk, 2022), 최근에는 개인의 정서적 경험이나 미디어 사용과 같은 비교적 새로운 영향 요인에도 주목하는 추세이다(Brown et al., 2022; Thomas, Carnelley, & Hart, 2022). 특히 자녀양육 초기는 장기적인 결혼생활의 기틀을 다져나가는 단계인 만큼 영유아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관여하는 다양한 변인들을 탐색하여 결혼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한 시의성 있는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결혼만족도는 주관적 판단의 영역이지만 개인은 이러한 판단을 내릴 때 타인과의 비교를 토대로 자신의 행복감과 만족감을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회비교이론(social comparison theory; Festinger, 1954)은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해당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접했을 때 그 정보를 자기의 삶과 관련지어 생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자기 판단을 내린다. 이러한 비교에는 자신보다 더 나은 처지에 있는 상대방을 비교 대상으로 설정하는 상향비교가 포함되는데, 이는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지기 쉽다(Schmuck, Karsay, Matthes, & Stevic, 2019).

사회비교이론과 상향비교의 개념은 소셜 미디어의 보편적 활용과 함께 더욱 주목받고 있다. 현재 영유아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들의 평균 출산 연령은 약 33세

로(육아정책연구소, 2024), 주로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s)에 해당한다. 이들은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로 소셜 미디어를 통한 소통에 익숙하게 참여한다. 소셜 미디어는 어머니들이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어머니와 교류하며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소셜 미디어는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지나치게 많은 육아 정보로 양육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거나, 타인과의 비교로 인한 불안과 불만족 등을 경험하게 만드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가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과 유사한 상황의 개인을 보며 상향비교를 경험하는 과정은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의 삶을 완벽하고 다소 비현실적인 모습으로 포장하여 드러내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상향비교가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된다(McComb, Vanman, & Tobin, 2023). 예를 들어 어머니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면서 다른 가정의 이상적인 일상을 접하며 상향비교를 경험할 경우, 이는 배우자에 대한 기대와 평가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가족 체계 이론(Minuchin, 1985)의 관점에서 적용해 본다면, 어머니가 경험한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향비교는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즉 배우자와의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족 체계 이론은 가족을 상호 연결된 하위체계들의 집합으로 보며, 한 구성원의 경험과 행동은 다른 구성원 및 가족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가정한다(Minuchin, 1985). 따라서 어머니의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향비교는 부부 관계라는 하위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상향비교에서 인식하는 부정적 감정은 실제 부부 상호작용에 반영되어 결혼만족도를 감소시킬 것이라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관계를 실증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경험적 검증이 요구된다.

어머니의 소셜 미디어에서의 비교 경험은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양육능력불안

에 의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선행 연구들은 어머니의 소셜 미디어에서의 사회비교가 양육불안과 유의하게 연관성을 가진다고 보고해 왔으며 (김선미, 김정민, 2020; 이샘, 김도연, 2023; Moujaes & Verrier, 2020), 최근에는 이러한 불안이 능력에 대한 불안으로 더욱 세분되어 나타나고 있다. 양육능력불안은 자녀를 충분히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자신감 부족이나 자녀의 미래와 행복에 대한 책임감, 경제적 부담, 그리고 양육에 대한 타인의 평가 등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기대와 현실 간의 긴장에서 비롯되는 불안을 의미한다(오영진, 김영희, 2021). 양육능력불안은 자녀의 안전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나 분리불안 등의 일반적인 양육불안과는 달리, 어머니가 자신의 양육 역량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부담과 불안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향비교는 어머니가 이러한 역량을 스스로 의심하며 평가절하하도록 이끌 수 있다.

구체적으로 Kirkpatrick와 Lee(2022)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가 완벽한 모성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으며, 어머니가 되는 경험을 복합적 현실은 배제한 채 이상화하고, 그에 비해 육아의 어려움과 고단함은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고 바라보았다. 이는 집중적 모성(intensive mothering)의 이데올로기가 소셜 미디어에서 강화되며 확산하는 현상과도 맞닿아 있다(Tate, 2023). 집중적 모성이란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자신의 육체적, 재정적, 정서적 에너지를 전적으로 집중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자녀에게서 찾으려 요구하는 관념을 일컫는다(Hays, 1996). 이는 어머니에게 양육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를 부과하여 혼란과 불안을 느끼도록 만들 수 있다. 즉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어머니가 마치 만능처럼 이상화된 다른 어머니의 모습을 자주 발견한다면, 이들은 자신과 상대방을 비교하면서 그에 따른 양육능력불안을 경험할 것이라 우려가 제기된다. 유사한 맥락에서 김희진과 조혜진(2024)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어머니들의 다수가 사회비교를 통해 경제력과 관련된 상대적 박탈감을 지각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단순한 상대적 결핍의 인식이 아니라, 자녀에게 필

요한 자원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지며, 이는 곧 양육능력불안의 한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능력불안은 결혼만족도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 예측을 해볼 수 있다. 자녀 양육에서 불안이 낮고 효능감이 높으면 결혼생활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 더 관대한 태도를 갖고 관계에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윤기봉, 김소영, 2020). 가족 체계 이론에서도 부모 하위체계와 부부 하위체계 간에는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가정한다. Kwok, Cheng, Chow와 Ling의 연구(2015)에 따르면, 어머니가 양육에서 자신감이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결혼만족도를 보여 가족 체계 이론의 전이(spillover) 효과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요컨대, 어머니의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향비교와 결혼만족도 간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능력불안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인 기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타인과의 비교가 어머니의 정서적 경험을 토대로 배우자와의 관계로 이어지는 경로를 체계적으로 검증한다면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소셜 미디어 경험에 대한 보다 확장된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나아가, 더욱 중요한 접근은 소셜 미디어가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인 사회·정서적 경험과 연관될 때 이러한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개입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가 보편적으로 쓰이며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고려한다면, 단순히 부정적인 영향만을 밝히고 검증하는 것보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발견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같은 자극과 경험이라도 개인에 따라 받아들이는 방식과 그로 인한 결과는 달라질 여지가 있기에, 이러한 개인차를 설명하는 변인을 찾아 실천적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또한 개인이 경험하는 상향비교가 반드시 일관되게 부정적 정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Festinger, 1954), 비교의 영향력을 조절하는 심리적 기제가 존재할 것이라 예측을 해볼 수 있다. 실제로 선행 연구들은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향비교가 지닌 부정적 영향이 개인의 감사 성향, 목표 지향성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Gerson, Plagnol, & Corr, 2016; Kaminger, Roth, & Laireiter, 2023).

인간은 객관적 현실 그 자체보다는 주관적으로 구성된 현실에 반응하는 존재이기에(Ross, 2001), 개인의 가치관은 경험의 의미를 규정하고 판단을 이끄는 핵심 요인이 된다. 어머니의 가치관 또한 외부 자극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심리적 틀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 중심성, 자녀 교육에 대한 신념, 경제적 가치 지향과 같은 다양한 가치관은 일상에서의 판단과 해석 방식에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물질주의란 다른 가치들에 비해 물질적 가치를 강조하고, 물질의 획득과 소유를 통해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Dittmar, Bond, Hurst, & Kasser, 2014). 양해만과 조영호(2018)는 경제 성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물질주의에서 탈물질주의로의 가치 전환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가치 전환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경제적 불안정과 고용 불안 등이 물질주의적 가치의 지속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오늘날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세대라는 점에서 물질주의 가치관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경험을 이해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Chae(2022)는 비교, 경쟁, 소비를 현대 어머니 됨을 구성하는 3가지 핵심 요소(3Cs)로 개념화하며, 어머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교뿐 아니라 물질에 대한 태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들은 조절변인으로서의 물질주의 가치관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물질주의 가치관은 개인의 경제적 여건과 주관적 만족감 간의 관계를 조절하며, 물질주의 성향이 높은 개인일수록 가계소득이 생활 만족도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Yu, Lee, Sirgy, & Bosnjak, 2020). 이는 물질주의 가치관이 강할수록 만족도의 기준을 소득, 사회적 지위와 같은 외적 요소에 두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Dittmar et al., 2014; Unanue, Rempel, Gómez, & Van den Broeck, 2017). 또한 물질주의 가치

관은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인플루언서의 매력도가 사용자의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Koay, Cheung, Soh, & Teoh, 2022), 이는 물질주의 성향이 높은 개인들이 외적 요소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과 연결될 수 있다.

일부 선행 연구들은 물질주의 가치관이 개인의 사회적 웰빙이나 결혼만족도 등 관계적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Bauer, Wilkie, Kim, & Bodenhausen, 2012; LeBaron, Allsop, Hill, Willoughby, & Britt-Lutter, 2017). 물질주의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가까운 타인에 대해서도 높은 성취나 긍정적으로 드러나는 이미지를 기대하도록 만들며, 이러한 외적 기준은 관계 내 갈등 증가와 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Moldes, 2025). 실제로 LeBaron 등(2017)은 배우자의 물질주의 성향이 결혼의 중요성 인식을 낮추고, 이로 인해 부부 양측의 결혼만족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밝혔다. 유사한 맥락에서 Goodwin과 Tinker(2002)는 개인이 학습한 가치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평가 기준과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회 학습적 관점을 제시한 바 있다. 즉 물질주의 가치관을 추구할수록 개인이 자신을 평가할 때 외적 기준을 중심에 두며 부정적 경험을 경험하는 것처럼, 배우자에 대한 평가에서도 외적 가치를 우선시하며 관계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물질주의 가치관이 관계적 웰빙을 직접적으로 저해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제안하였기에(Yoo, Miyamoto, Evers, Lee, & Wong, 2021) 이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물질주의 가치관이 어머니의 양육 맥락에서 어떻게 관여하는지 탐색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양육능력불안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물질주의 가치관이 조절 변수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소셜 미디어 상의 상향비교가 양육능력불안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러한 양육능력불안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머니의 물질주의 가치관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실증 검증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이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가 소셜 미디어에서 경험하는 상향비교가 양육능력불안을 예측하고, 이러한 양육능력불안이 결혼만족도를 예측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이 관계가 어머니의 물질주의 가치관에 의해 조절되는지 검토하여 어머니의 소셜 미디어 경험이 양육 및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탐색하고자 한다(그림 1 참조). 이를 통해 결혼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한 실천적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능력불안은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향비교와 결혼만족도 간 관계를 매개하는가?
- 연구문제 2.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향비교, 양육능력불안, 결혼만족도 간 관계를 물질주의 가치관이 조절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이 연구는 2018년에서 2022년 사이에 출생한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 3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모두 소셜 미디어 중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어머니들

로, 본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 이용을 게시물 업로드, ‘좋아요’나 댓글과 같은 반응, 그리고 다른 사용자의 게시물을 단순히 열람하거나 읽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 중 인스타그램 이용자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최근 인스타그램의 이용자 수와 이용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그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 특히 인스타그램은 지난 5년간 전 연령대에서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배문규, 2024), 본 연구에서는 이를 소셜 미디어 이용의 대표 사례로 간주하였다.

연구참여자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4.84세($SD = 3.13$)였으며, 연령 범위는 27세에서 44세였다. 영유아 자녀의 평균 월령은 48.31개월($SD = 15.05$)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연령 분포는 만 1세 18.2%, 만 2세 24.4%, 만 3세 28.8%, 만 4세 19.7%, 만 5세 8.8%였다. 자녀의 성별은 여아가 51.8%, 남아가 48.2%였으며, 참여자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4년제 대학 졸업이 69.1%로 가장 많았고, 2 ~ 3년제 대학 졸업 18.2%, 고등학교 졸업 이하 9.4%, 대학원 재학 이상 3.2% 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향비교

어머니의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향비교를 측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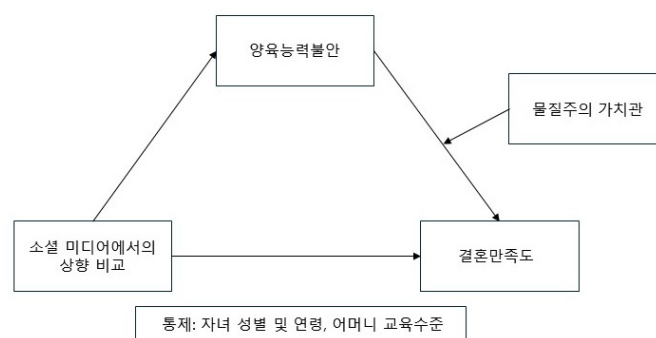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위해 Steers, Wickham과 Acitelli(2014)이 개발한 SNS 상의 상향비교 척도를 정소라와 현명호(2017)가 한국 맥락에 맞게 수정·보완한 버전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NS 사용 중 경험하는 상향비교의 정도를 측정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게시물과 나의 일상을 비교하게 된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접하다 보면 사람들은 나보다 더 열정적으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SNS에서의 상향비교 경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2) 양육능력불안

어머니의 양육능력불안은 오영진과 김영희(2021)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부모양육불안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능력불안, 관계불안, 보호불안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능력불안 하위요인만을 사용하였다. 오영진과 김영희(2021)는 부모양육불안 척도를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각각의 하위척도만을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명시한 바 있다. 능력불안 하위요인은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시 문항으로는 “내 아이의 행복(미래)이 내게 달려 있을까봐 걱정이 된다.”, “나는 내가 양육을 잘하고 있는지 불안하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능력에 대한 불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s α)는 .96으로 나타났다.

3) 결혼만족도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Schumm 등(1986)이 개발한 KMSS(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한국 문화에 맞게 변안하고 타당화한 RKMSS(Revised

Korean Marital Satisfaction Scale; Chung, 2004)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남편이 배우자로서 만족스럽다.”, “나는 결혼생활에 만족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다.

4) 물질주의 가치관

어머니의 물질주의 가치관은 Richins와 Dawson(1992)이 개발한 물질주의 가치 척도를 유지혜와 설경옥(2018)이 한국어로 변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물질주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성공판단, 소유중심, 행복추구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시 문항으로는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취 중 하나이다.”, “쇼핑은 내게 큰 기쁨을 준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물질주의 가치관이 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하위요인별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s α)는 성공판단 .87, 소유중심 .84, 행복추구 .80이며, 전체 척도는 .93으로 나타났다.

5)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별 및 연령, 어머니의 교육 수준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 자녀의 성별은 부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의 양육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Bradbury, Fincham, & Beach, 2000) 자녀의 성별(0: 남아, 1: 여아)과 월령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결혼생활의 질과 관련이 있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관계 만족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Choi & Marks,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최종 학력

을 ‘고등학교 졸업 이하(1) ~ 대학원 졸업 이상(4)’의 4점 척도로 측정하여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

3. 연구절차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IRB No.240408-2A)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수행되었으며,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 방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뒤 자발적인 동의하에 조사가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2024년 6월 19일부터 26일까지 약 일주일간 실시되었다.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네 곳에 연구 참여 공고문을 게시하였으며, 해당 공고문에 포함된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를 통해 자발적으로 응답이 이루어졌다. 총 347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자 3명과 부부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구(예: 한부모 가정,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한부모 가정) 4명을 제외한 340명의 응답을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다.

4. 자료분석

모든 자료는 SPSS 26.0과 Hayes(2017)가 개발한 PROCESS macro(version 4.2)를 사용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통해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향비교

가 양육능력불안을 통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활용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셋째, 이 매개효과가 어머니의 물질주의 가치관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14를 사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moderated mediation) 분석을 수행하였다. 매개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에서 자녀의 성별, 월령, 어머니의 교육 수준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여 이들 변인의 영향을 고려하였으며,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95% 신뢰구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연구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먼저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향비교 평균은 2.90점($SD = 1.06$), 양육능력불안 평균은 2.67점($SD = 1.16$), 결혼만족도 평균은 3.75점($SD = 1.08$), 물질주의 가치관 평균은 2.99점($SD = 0.95$)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의 평균값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의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결혼만족도($M = 3.75$)가 다른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연구 참여자들이 결혼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인들의 정규성 검증을 위해

표 1.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N = 340)

	1	2	3	4
1.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향비교	-			
2. 양육능력불안	.56***	-		
3. 결혼만족도	-.48***	-.54***	-	
4. 물질주의 가치관	.56***	.39***	-.40***	-
평균	2.90	2.67	3.75	2.99
표준편차	1.06	1.16	1.08	.95
왜도	.21	.47	-1.07	.07
첨도	-1.12	-1.17	-.01	-.99

*** $p < .001$.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는 $-1.07 \sim .47$, 첨도는 $-1.17 \sim -.01$ 의 범위로 나타나 모두 정규성 가정(왜도 $< |3|$, 첨도 $< |8|$)을 충족하였다(Kline, 2015).

상관관계 분석 결과, 모든 주요 변인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향비교는 양육능력불안($r = .56, p < .001$) 및 물질주의 가치관($r = .56, p < .001$)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결혼만족도($r = -.48, p < .001$)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양육능력불안은 결혼만족도($r = -.54, p < .001$)와 부적 상관을, 물질주의 가치관($r = .39, p < .001$)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결혼만족도는 물질주의 가치관($r = -.40, p < .001$)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소셜 미디어 상향비교, 양육능력불안, 결혼만족도 및 물질주의 가치관이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어머니의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향비교와 결혼만족도 간 관계에서 양육능력불안의 매개효과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향비교와 결혼만족도 간 관계에서 양육능력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7)가 개발한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사용하였다. 이때 자녀의 성별 및 월령, 어머니의 교육 수준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향비교는 양육능력불안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55, p < .001$). 이는 어머니가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보다 더 나은 조건의 타인과 자신을 비교할수록 양육능력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양육능력

불안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한 모델에서 어머니의 상향비교는 결혼만족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 = -.26, p < .001$), 양육능력불안 역시 결혼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9, p < .001$). 이는 어머니가 소셜 미디어에서 상향비교를 많이 할수록, 그리고 양육에 대한 불안이 클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아짐을 의미한다. 모형의 설명력은 양육능력불안에서 32%($R^2 = .32, F = 39.17, p < .001$), 결혼만족도에서 34%($R^2 = .34, F = 34.04, p < .001$)로 나타났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표 3 참조), 소셜 미디어 상향비교가 양육능력불안을 매개로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22$ (BootSE = .04)였으며, 95% 신뢰구간 $[-.30, -.15]$ 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소셜 미디어 상향비교가 양육능력불안을 매개로 하여 결혼만족도에 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머니가 소셜 미디어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할 때 양육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며, 이는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저하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어머니의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향비교, 양육능력불안,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물질주의 가치관의 조절된 매개효과

어머니의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향비교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물질주의 가치관의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Hayes(2017)가 개발한 PROCESS macro의 Model 14를 활용하여 조절된

표 2.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향비교와 결혼만족도 간 관계에서 양육능력불안의 매개효과

	종속변수: 양육능력불안				종속변수: 결혼만족도			
	B	β	SE	t	B	β	SE	t
상수	1.01		.33	3.03	5.58		.31	18.08
상향비교	.61	.55	.05	12.08***	-.26	-.26	.06	-4.80***
양육능력불안					-.37	-.39	.05	-7.31***
	$R^2 = .32, F = 39.17^{***}$				$R^2 = .34, F = 34.04^{***}$			

*** $p < .001$.

표 3.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한 부트스트래핑 결과

변수	Effect (B)	BootSE	95% CI	
			BootLLCI	BootULCI
양육능력불안	-.22	.04	-.30	-.15

표 4.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향비교, 양육능력불안,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물질주의 가치관의 조절된 매개효과

	<i>B</i>	<i>SE</i>	<i>t</i>	95% CI	
				LLCI	ULCI
종속변수: 양육능력불안					
상수	1.01	.33	3.03	.35	1.66
상향비교	.61	.05	12.08***	.51	.70
$R^2 = .32, F = 39.17^{***}$					
종속변수: 결혼만족도					
상수	4.65	.43	10.85	3.81	5.49
상향비교	-.21	.06	-3.46**	-.32	-.09
양육능력불안	.17	.14	1.22	-.11	.45
물질주의 가치관	.21	.12	1.83	-.02	.45
양육능력불안 *물질주의 가치관	-.16	.04	-3.92***	-.23	-.08
$R^2 = .38, F = 29.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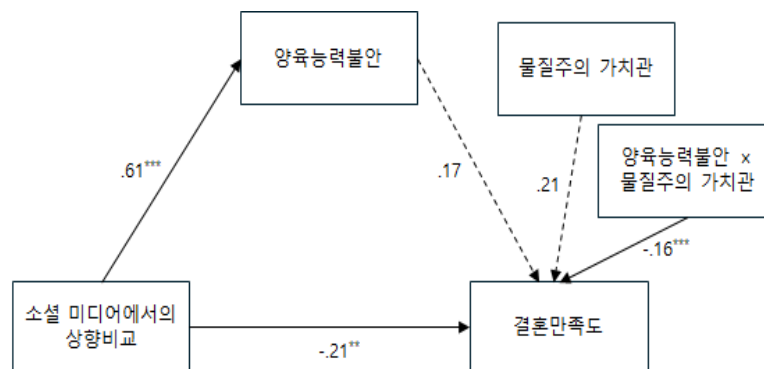
** $p < .01$. *** $p < .001$.** $p < .01$. *** $p < .001$.

그림 2. 통계 모형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표 4 및 그림 2와 같이 상향비교는 양육능력불안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 = .61, p < .001$). 이는 어머니가 소셜 미디어에서 상향비교를 많이 할수록 양육능력불안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결혼만족도에 대한 경로를 살펴보면, 상향비교의 직접효과가 유의하였고($B = -.21, p < .01$), 양육능력불안과 물질주의 가치관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B = -.16, p < .001$).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pick-a-point

방식을 사용하여 물질주의 가치관의 평균 및 평균 ± 1 SD에 해당하는 세 지점에서 조건부 효과를 분석하였다(표 5 및 그림 3 참조). 물질주의 가치관이 평균일 때($B = -.29, 95\% \text{ CI}[-.39, -.19]$)와 평균보다 1표준편차 높을 때($B = -.44, 95\% \text{ CI}[-.55, -.33]$)는 양육능력불안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평균보다 1표준편차 낮을 때도 약하지만 유의한 부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B = -.15, 95\% \text{ CI}[-.29, -.01]$). 각 조절수준에서 모두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표 5. 물질주의 가치관 수준에 따른 조건부 조절효과 검증 결과

		<i>B</i>	<i>SE</i>	95% CI	
				LLCI	ULCI
물질주의 가치관	평균-1SD (2.05)	-.15	.07	-.29	-.01
	평균 (2.99)	-.29	.05	-.39	-.19
	평균+1SD (3.94)	-.44	.05	-.55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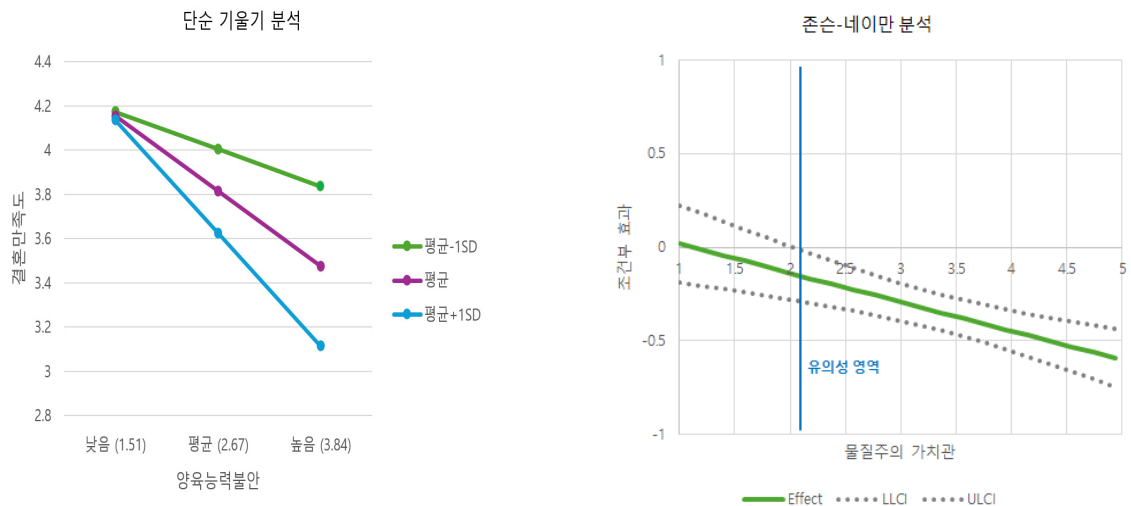


그림 3. 물질주의 가치관 수준에 따른 조건부 조절효과 검증 결과

물질주의 가치관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보다 정교한 분석을 위해 존슨-네이만 방법을 적용하여 물질주의 가치관의 전체 범위에서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그림 3 참조). 분석 결과, 어머니의 물질주의 가치관이 2.02점 이상인 구간에서 양육능력불안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물질주의 가치관이 낮은 수준에서는 조건부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2.02점 이상부터는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고 부정적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전체 연구참여자의 80.0%가 물질주의 가치관이 2.02점 이상인 구간에 해당하여, 대다수의 어머니에게서 이러한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표 6 참조), 조절된 매개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가 $-.09(95\% \text{ CI}[-.15, -.04])$ 로 나타났으며,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물질주의 가

치관에 의한 조절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소셜 미디어 상향비교가 양육능력불안을 통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물질주의 가치관 수준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pick-a-point 방식을 적용하여 물질주의 가치관의 조건부 간접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물질주의 가치관이 평균($B = -.18, 95\% \text{ CI}[-.25, -.11]$)이거나 평균보다 1표준편차 높은 수준($B = -.27, 95\% \text{ CI}[-.35, -.18]$)에서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였으나, 평균보다 1표준편차 낮은 수준($B = -.09, 95\% \text{ CI}[-.18, .01]$)에서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특히 물질주의 가치관 점수가 높아질수록 간접효과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어머니가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양육능력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물질주의 가치관 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강화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6. 물질주의 가치관 수준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결과

		Effect (<i>B</i>)	BootSE	95% CI	
				BootLLCI	BootULCI
물질주의 가치관	평균-1SD (2.05)	-.09	.05	-.18	.01
	평균 (2.99)	-.18	.04	-.25	-.11
	평균+1SD (3.94)	-.27	.04	-.35	-.18
		Index	BootSE	95% CI	
				BootLLCI	BootULCI
조절된 매개지수		-.09	.03	-.15	-.04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어머니의 소셜 미디어 상향비교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 관계는 양육능력불안의 증가를 매개로 부분적으로 설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사회비교 경험이 결혼만족도 및 양육 관련 불안에 유의하게 연결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김선미, 김정민, 2020; 이샘, 김도연, 2023; Coyne, McDaniel, & Stockdale, 2017; Moujaes & Verrier, 2020). 또한 양육에 대한 효능감이나 확신의 결여가 결혼만족도 저하와 연관된다는 기존 연구들(윤기봉, 김소영, 2020; Kwok et al., 2015)의 주장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영유아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들은 육아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며, 이 과정에서 육아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거나 육아 릴스를 시청하고 육아 마켓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에 노출된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관심과 상호작용 이력을 반영하여 유사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가시화하므로(Cotter, 2019), 사용자인 어머니들이 자신과 비슷한 조건을 가진 타인(예: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삶을 반복적으로 접하게 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상향비교는 자신과 일정 부분 유사성을 지니면서도 더 나은 상황에 있는 타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Festinger, 1954), 이러한 상향비교는 자신의 일상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기 쉽다(김희진, 조혜진, 2024; Park & Park, 2024).

소셜 미디어 상에서는 실제보다 긍정적으로 꾸며지고 섬세하게 가공된 이미지가 공유되곤 한다(Vogel, Rose, Roberts, & Eckles, 2014). 배우자와의 갈등이나 가족의 불화보다는 배우자와의 애정 어린 관계, 결혼생활의 가장 행복한 장면을 소셜 미디어에 공개하고 표현하는 편이 더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이상화된 가정의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접하는 어머니들은 자신의 배우자나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거나, 상대적으로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향비교 경험이 결혼만족도 저하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어머니의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향비교는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양육능력불안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 미디어는 현실과 괴리된 모성 이데올로기를 강화할 수 있으며(Chae, 2015; Kirkpatrick & Lee, 2022; Wagstaff, Wolf, & Smith, 2024),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여성들이 양육에 대한 불안과 정서적 소진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양육능력불안은 부모로서의 역량에 대한 자기평가와 관련된 불안을 의미한다. 자녀를 충분히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자신감의 부족뿐 아니라, 자녀의 미래와 행복에 대한 책임감, 양육에 대한 타인의 평가, 경제적 자원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오는 심리적 긴장으로 나타난다(오영진, 김영희, 2021).

최근 연구자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집중적 모성 이데올로기가 미묘하지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향에 주목하고 있다(Kirkpatrick & Lee, 2022). 예를 들어, Chae(2015)는

한국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명한 엄마 담론에 노출될수록 집중적 모성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집중적 모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달성하기 어려운 이상이며(Williamson, Wagstaff, Goodwin, & Smith, 2023), 불균형한 부담을 지우는 신전통적 성 역할 규범과 연결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Minnotte, 2023). 이는 여성들이 성 고정관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점과 맞물려(이소현, 김은영, 정사강, 2023) 어머니들이 반복적으로 이상화된 모성 이미지에 노출될수록 자신의 양육능력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집중적 모성의 내면화를 직접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소셜 미디어상의 사회비교가 이러한 내면화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선행 연구(Wagstaff et al., 2024)는 본 연구 결과의 해석을 뒷받침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집중적 모성의 내면화와 사회비교 간의 관계를 함께 측정하여 분석하는 것도 흥미롭고 의미 있는 연구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어머니가 스스로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려는 시도를 하더라도, 소셜 미디어는 ‘좋아요’, 댓글 및 공유 수 등 계량화된 반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특성을 지닌다. 대중의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해당 콘텐츠나 육아 방식에 대한 어머니의 신뢰도와 모방 경향이 강해질 수 있으며, 이는 어머니가 타인의 양육 방식과 환경을 실제로 더 우수하다고 인식하게 만듦으로써 자신의 양육능력에 대해 회의하거나 불안을 느끼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능력불안은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년 세대는 자녀를 낳고 책임질 수 있는 경제적·정서적 역량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며, 결혼과 출산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자신의 준비 수준과 능력에 대한 인식과 더 밀접하게 결부되는 경향을 보인다(김근태, 2024; 송헌재, 윤다정, 이수성, 조하영, 2022). 오늘날의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어머니가 자신의 양육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결혼과 부모 됨에 대한 회

의가 커지거나 배우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등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지리란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하위체계에서의 정서적 경험(스필로버) 개념과도 맥락을 같이한다(Erel & Burman, 1995; Kwok et al., 2015).

둘째,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향비교가 양육능력불안을 매개로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어머니의 물질주의 가치관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향비교 경험은 모든 참여자 어머니의 양육능력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나, 그 불안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가 지닌 가치지향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물질주의 가치관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양육능력에 대한 불안을 크게 지각할수록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더욱 낮아졌다. 반면, 물질주의 가치관의 수준이 낮은 어머니의 경우에는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향비교 경험이 양육능력불안을 거쳐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능력불안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모든 어머니에게 동일하지 않으며, 개인이 지닌 가치지향에 따라 그 영향의 강도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어머니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양육행동이나 방식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거나 환경 등의 경제적 조건에 대해서도 상향비교를 경험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김희진, 조혜진, 2024), 이러한 비교는 어머니로 하여금 양육능력불안을 느끼게 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더욱이 외적 가치 추구가 두드러지는 한국 사회의 현재 맥락을 고려하면(한나, 이승연, 2023), 양육능력불안은 많은 어머니들이 일정 수준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 중 하나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감이 배우자에 대한 불만으로까지 확산되는 과정에는 어머니 스스로가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지향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

물질주의 가치관이 두드러지는 개인은 물질적 재화, 사회적 지위, 외모 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Dittmar

et al., 2014; Unanue et al., 2017) 자신과 타인을 평가할 때 이러한 외적 요소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Moldes, 2025). 이러한 특징은 부부관계 속 기대와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지선과 설경옥(2018)은 물질주의 성향이 높은 개인일수록 이상적인 배우자의 조건으로 ‘능력/자원’과 ‘외모/매력’ 등 외적 요소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Dean, Carroll과 Yang(2007)은 부부의 실제 소득 수준보다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가정의 재정 문제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데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는 동일한 재정 상황에서도 물질주의 가치관이 강한 어머니일수록 더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이 심화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결과는 물질주의 가치관 수준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양육능력에 대한 불안을 경험할 때 결혼만족도의 감소폭이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어머니의 물질주의 가치지향이 양육에서 비롯된 심리적 부담을 배우자와의 관계로 보다 강하게 확산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불안이 커질수록 어머니는 배우자에게서 보완적 역할을 기대하게 되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좌절과 실망이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물질주의 가치관이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물질주의 가치관 수준이 높을수록 관계적 안녕감과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선행 연구(Bauer et al., 2012; LeBaron et al., 2017)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성의 물질주의 가치관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가 문화적 맥락이나 성별 규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도 여러 연구에서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여성의 물질주의 추구가 자신의 성적 친밀감을 높이는 동시에 배우자가 지각하는 친밀감은 낮추는 이중적 결과를 보고하였는데(Leavitt, Dew, Allsop, Runyan, & Hill, 2019),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사회에서 여성의 물질주의 추구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면서 부부관계 역학

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조성봉과 손해인(2024)은 여성이 물질로 성공을 판단할수록 결혼 의향이 높아지고, 결혼 자체를 개인 성공의 한 요소로 간주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Seol, Back과 Kim(2021)은 아내의 소득 수준이 남편보다 높을수록 아내의 물질주의 가치관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강해지지만, 아내의 소득이 더 낮은 경우에는 물질주의 가치관의 영향이 두드러지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과 함께 한국 사회에서 남성에게 경제적 부양 역량을 기대하는 전통적인 성 역할 규범이 잔존한다는 점(이소현 등, 2023)을 고려하면, 어머니의 물질주의 가치관 추구가 반드시 본인의 결혼만족도를 유의하게 낮추지 않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오히려 물질주의 가치관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결혼 자체를 성공의 한 지표로 바라보거나, 혹은 자신이 중시하는 외적 조건(예: 자신보다 높은 소득)을 통해 심리적 만족감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 입장에서는 갈등이 커질 소지가 있기에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하나의 가능성이며,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상대적 수입 등을 함께 고려해 어머니 물질주의 가치관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검증한다면 더욱 풍부한 논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개입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반이 될 수 있다. 상담 장면에서는 어머니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할 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비교 경험과, 그로 인해 부모로서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는 감정적 반응이나 배우자와의 정서적 거리감을 지각하는지 등을 함께 점검해 볼 수 있다. 또한 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성찰하고, 가족관계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족센터에서 운영 중인 ‘서울가족학교’와 같은 지역 기

반 프로그램에서는 부부의 가치지향이나 가족생활에 대한 기대를 점검하는 교육 세션을 통해 비교 경험에서 비롯된 불안이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내용은 예비부부 교실, 신혼부부 교실, 아동기 부모 교실 등 시기별 프로그램 간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구성될 경우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는 소셜 미디어 시대에 건강한 가족 및 양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담론 형성과 관련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해외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셜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 규제가 시작되고 있는데(김태성, 이영옥, 2024), 이는 소셜 미디어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반영하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성인층을 대상으로도 과도한 소셜 미디어 몰입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논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횡단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했기 때문에 변수 간 인과적 방향성을 단정하기보다는 주의 깊은 해석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잦은 상향비교가 양육능력불안을 증가시켰는지, 혹은 기존의 높은 불안 수준이 상향비교를 더욱 촉진하는지에 대한 역방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 설계를 도입함으로써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더 정밀하게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 이용 시간이나 중독 경향성과 같은 사용 특성을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상향비교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여 변수 간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교육 수준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으나,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및 결혼생활 맥락에서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 또한 의미 있는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어머니의 취업 여부가 물질주의 가치관과 관련된 재정적 경험이나 일상적 의사결정과도 연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변수 간 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향비교가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능력 관련 불안감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이나 초기 성인층을 대상으로 소셜 미디어 이용의 부정적 영향을 분석해 왔으나(e.g., McComb et al., 2023; Schmuck et al., 2019; Sherman, Greenfield, Hernandez, & Dapretto, 2018),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험에 초점을 맞춘 실증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Coyne et al., 2017). 이 연구는 어머니 개인의 불안뿐 아니라 부부관계에서의 만족감과 같은 가족 내 심리사회적 지표까지 분석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한국 사회에 만연한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고려하여 어머니의 소셜 미디어 경험을 거시적 맥락에서 조망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참고문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 2023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요약보고서.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김근태 (2024). 청년의 불안감과 출산의도의 관계: 초점집단 토론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47(2), 1-32.
<https://doi.org/10.31693/KJPS.2024.06.47.2.1>
- 김선미, 김정민 (2020).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SNS상의 사회비교가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38(1), 93-109.
<https://doi.org/10.7466/JKHMA.2020.38.1.93>
- 김소영, 진미정 (2016). 부모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 관련요인 변화와 가족정책에의 함의. *가정과삶의질연구*, 34(5), 1-19.
<https://doi.org/10.7466/JKHMA.2016.34.5.1>
- 김은희, 이완정 (2023). 부부갈등이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비일관적 양육 행동의 순차적 이중매개 효과. *인간발달연구*, 30(3), 23-38.
<https://doi.org/10.15284/kjhd.2023.30.3.23>
- 김지선, 설경옥 (2018). 대학생의 물질주의와 이상적 배우자상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2(4), 1-23.

- <https://doi.org/10.21193/kjspp.2018.32.4.001>
- 김태성, 이영옥 (2024. 11. 30). “폰만 보는 아이들? 어른들도 다르지 않은데”...불붙는 미성년자 SNS 규제 논란.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it/11182204>에서 2025년 4월 1일 인출
- 김희진, 조혜진 (2024).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양육에의 소셜미디어 활용과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 *육아지원연구*, 19(3), 83-103.
<https://doi.org/10.16978/eccec.2024.19.3.004>
- 배문규 (2024. 3. 19). 국민 절반은 인스타그램을 한다...이용자 수 5년 만에 두 배로.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3191003001>에서 2025년 4월 1일 인출
- 서미정 (2017). 어머니가 인식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버지 및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간 종단적 관련성. *육아정책연구*, 11(3), 47-64.
- 송헌재, 윤다정, 이수성, 조하영 (2022). 결혼관과 자녀관을 통해 바라본 청년층의 현실 인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4(1), 229-239.
<https://doi.org/10.37727/jkdas.2022.24.1.229>
- 양해만, 조영호 (2018). 한국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탈물질주의: 왜 한국인들은 여전히 물질주의적인가? *한국정치학회보*, 52(1), 75-100.
<https://doi.org/10.18854/kpsr.2018.52.1.004>
- 오영진, 김영희 (2021). 부모양육불안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8(2), 27-57.
<https://doi.org/10.22155/JFECE.28.2.27.57>
- 유지혜, 설경옥 (2018). 한국판 물질주의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3), 385-410.
<https://doi.org/10.20406/kjcs.2018.8.24.3.385>
- 육아정책연구소. (2024). 2023 영유아 주요 통계.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윤기봉, 김소영 (2020).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 간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및 조절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38(1), 79-91.
<https://doi.org/10.7466/JKHMA.2020.38.1.79>
- 이샘, 김도연 (2023).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SNS 이용과 양육불안의 관계: 상향비교와 인지적 통제유연성의 매개효과-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발달지원연구*, 12(2), 83-99.
<https://doi.org/10.22839/adp.2023.12.2.83>
- 이소현, 김은영, 정사강 (2023). 육아 예능 프로그램 속 돌봄의 재현: 성역할과 부모되기. *아시아여성연구*, 62(1), 169-218.
<https://doi.org/10.14431/jaw.2023.4.62.1.169>
- 정소라, 현명호 (2017). SNS 이용강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에 의해 조절된 상향비교의 매개효과: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2(4), 1035-1053.
- <https://doi.org/10.17315/kjhp.2017.22.4.011>
- 조성봉, 손해인 (2024). 돈? 가치관? 물질주의가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탐색. *가족자원경영과 정책(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8(1), 39-53.
<https://doi.org/10.22626/jkfrma.2024.28.1.004>
- 통계청. (2024). 2024년 사회조사 결과. 대전: 통계청.
- 한나, 이승연 (2023).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의 가치 우선순위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7(3), 427-450.
<https://doi.org/10.21193/kjspp.2023.37.3.007>
- Bauer, M. A., Wilkie, J. E., Kim, J. K., & Bodenhausen, G. V. (2012). Cuing consumerism: Situational materialism undermines personal and social well-being. *Psychological Science*, 23(5), 517-523.
<https://doi.org/10.1177/0956797611429579>
- Bradbury, T. N., Fincham, F. D., & Beach, S. R. (2000). Research on the nature and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A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4), 964-980.
<https://doi.org/10.1111/j.1741-3737.2000.00964.x>
- Brown, C. L., Chen, K. H., Wells, J. L., Otero, M. C., Connolly, D. E., Levenson, R. W., & Fredrickson, B. L. (2022). Shared emotions in shared lives: Moments of co-experienced affect, more than individually experienced affect, linked to relationship quality. *Emotion*, 22(6), 1387-1393.
<https://doi.org/10.1037/emo0000939>
- Chae, J. (2015). “Am I a better mother than you?” Media and 21st-century motherhood in the context of the social comparison theory. *Communication Research*, 42(4), 503-525.
<https://doi.org/10.1177/0093650214534969>
- Chae, J. (2022). Comparison, competition, and consumption: The 3Cs of contemporary motherhood in the context of children's education. *Sex Roles*, 87(11), 550-564.
<https://doi.org/10.1007/s11199-022-01334-w>
- Choi, H., & Marks, N. F. (2011). Socioeconomic status, marital status continuity and change, marital conflict, and mortality. *Journal of Aging and Health*, 23(4), 714-742.
<https://doi.org/10.1177/0898264310393339>
- Chung, H. (2004).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with Korean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95(3), 1015-1022.
<https://doi.org/10.2466/pr0.95.3.1015-1022>
- Cotter, K. (2019). Playing the visibility game: How digital influencers and algorithms negotiate influence on Instagram. *New Media & Society*, 21(4), 895-913.
<https://doi.org/10.1177/1461444818815684>

- Coyne, S. M., McDaniel, B. T., & Stockdale, L. A. (2017). "Do you dare to compare?" Associations between maternal social comparisons on social networking sites and parenting, mental health, and romantic relationship outcom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70, 335-340. <https://doi.org/10.1016/j.chb.2016.12.081>
- Craft, A. L., Perry-Jenkins, M., & Newkirk, K. (2021). The implications of early marital conflict for children's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30(1), 292-310. <https://doi.org/10.1007/s10826-020-01871-6>
- Dean, L. R., Carroll, J. S., & Yang, C. (2007). Materialism, perceived financial problems, and marital satisfaction.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35(3), 260-281. <https://doi.org/10.1177/1077727X06296625>
- Didericksen, K. W., Edwards, A. E., Wetchler, J. L., & Walker, J. A. (2015). Maternal well-being: Health, differentiat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The Family Journal*, 23(1), 56-64. <https://doi.org/10.1177/1066480714547186>
- Dittmar, H., Bond, R., Hurst, M., & Kasser, T.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m and personal well-being: A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7(5), 879-924. <https://doi.org/10.1037/a0037409>
- Erel, O., & Burman, B. (1995). Interrelatedness of marital relations and parent-child relation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8(1), 108-132. <https://doi.org/10.1037/0033-2909.118.1.108>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2), 117-140. <https://doi.org/10.1177/001872675400700202>
- Gerson, J., Plagnol, A. C., & Corr, P. J. (2016). Subjective well-being and social media use: Do personality traits moderate the impact of social comparison on Facebook? *Computers in Human Behavior*, 63, 813-822. <https://doi.org/10.1016/j.chb.2016.06.023>
- Goodwin, R., & Tinker, M. (2002). Value priorities and preferences for a relationship partne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8), 1339-1349. [https://doi.org/10.1016/S0191-8869\(01\)00122-2](https://doi.org/10.1016/S0191-8869(01)00122-2)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Hays, S. (1996).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motherhoo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Kaminger, S., Roth, L. H. O., & Laireiter, A. R. (2023). #Blessed: The moderating effect of dispositional gratitud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mparison and envy on Instagram. *Frontiers in Psychology*, 14, 1159999. <https://doi.org/10.3389/fpsyg.2023.1159999>
- Kanter, J. B., Lavner, J. A., Lannin, D. G., Hilgard, J., & Monk, J. K. (2022). Does couple communication predict later relationship quality and dissolution? A meta-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4(2), 533-551. <https://doi.org/10.1111/jomf.12804>
- Kirkpatrick, C. E., & Lee, S. (2022). Comparisons to picture-perfect motherhood: How Instagram's idealized portrayals of motherhood affect new mothers' well-being.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37, 107417. <https://doi.org/10.1016/j.chb.2022.107417>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ew York: Guilford Press.
- Koay, K. Y., Cheung, M. L., Soh, P. C. H., & Teoh, C. W. (2022). Social media influencer marketing: The moderating role of materialism. *European Business Review*, 34(2), 224-243. <https://doi.org/10.1108/EBR-02-2021-0032>
- Kwok, S. Y., Cheng, L., Chow, B. W., & Ling, C. C. (2015). The spillover effect of parenting on marital satisfaction among Chinese mother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4, 772-783. <https://doi.org/10.1007/s10826-013-9888-x>
- Leavitt, C. E., Dew, J. P., Allsop, D. B., Runyan, S. D., & Hill, E. J. (2019). Relational and sexual costs of materialism in couple relationships: An actor-partne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40, 438-454. <https://doi.org/10.1007/s10834-019-09617-3>
- LeBaron, A. B., Allsop, D. B., Hill, E. J., Willoughby, B. J., & Britt-Lutter, S. L. (2017). Marriage and materialism: Actor and partner effects between materialism, importance of marriage,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Financial Therapy*, 8(2), 1-23. <https://doi.org/10.4148/1944-9771.1145>
- McComb, C. A., Vanman, E. J., & Tobin, S. J. (2023). A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social media exposure to upward comparison targets on self-evaluations and emotions. *Media Psychology*, 26(5), 612-635. <https://doi.org/10.1080/15213269.2023.2180647>
- Minnotte, K. L. (2023). Decentering intensive mothering: More fully accounting for race and class in motherhood norms. *Sociology Compass*, 17(8), e13095. <https://doi.org/10.1111/soc4.13095>
- Minuchin, P. (1985). Families and individual development: Provocations from the field of family therapy. *Child*

- Development*, 56(2), 289-302.
<https://doi.org/10.2307/1129720>
- Moldes, O. (2025). Unpacking the effects of materialism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 cognitive approach.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64(2), 1-21.
<https://doi.org/10.1111/bjso.12795>
- Moujaes, M., & Verrier, D. (2020). Instagram use, instamums, and anxiety in mothers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Media Psychology*, 33(2), 72-81.
<https://doi.org/10.1027/1864-1105/a000282>
- Park, H. J., & Park, Y. B. (2024). Negative upward comparison and relative deprivation: Sequential mediators between social networking service usage and loneliness. *Current Psychology*, 43(10), 9141-9151.
<https://doi.org/10.1007/s12144-023-05057-3>
- Richins, M. L., & Dawson, S. (1992). A consumer values orientation for materialism and its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3), 303-316.
<https://doi.org/10.1086/209304>
- Ross, L. D. (2001). Getting down to fundamentals: Lay dispositionism and the attributions of psychologists. *Psychological Inquiry*, 12(1), 37-40.
- Schmuck, D., Karsay, K., Matthes, J., & Stevic, A. (2019). "Looking up and feeling down". The influence of mobile social networking site use on upward social comparison, self-esteem, and well-being of adult smartphone users. *Telematics and Informatics*, 42, 101240.
<https://doi.org/10.1016/j.tele.2019.101240>
- Schumm, W. R., Paff-Bergen, L. A., Hatch, R. C., Obiorah, F. C., Copeland, J. M., Meens, L. D., & Bugaighis, M. A. (1986).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2), 381-387.
<https://doi.org/10.2307/352405>
- Seol, K. O., Baek, S., & Kim, J. (2021). Materialism, wives' relative earnings, and marital satisfaction among South Korean couples: Actor and partner effect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5(6), 780-788.
<https://doi.org/10.1037/fam0000872>
- Sherman, L. E., Greenfield, P. M., Hernandez, L. M., & Dapretto, M. (2018). Peer influence via Instagram: Effects on brain and behavior in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Child Development*, 89(1), 37-47.
<https://doi.org/10.1111/cdev.12838>
- Steers, M. L. N., Wickham, R. E., & Acitelli, L. K. (2014). Seeing everyone else's highlight reels: How Facebook usage is linked to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3(8), 701-731.
<https://doi.org/10.1521/jscp.2014.33.8.701>
- Tate, M. K. (2023). The impact of social comparison via social media on maternal mental health, within the context of the intensive mothering ideology: A scoping review of the literature.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44(9), 854-870.
<https://doi.org/10.1080/01612840.2023.2238813>
- Thomas, T. T., Carnelley, K. B., & Hart, C. M. (2022). Phubbing in romantic relationships and retaliation: A daily diary stud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37, 107398.
<https://doi.org/10.1016/j.chb.2022.107398>
- Unanue, W., Rempel, K., Gómez, M. E., & Van den Broeck, A. (2017). When and why does materialism relate to employees' attitudes and well-being: The mediational role of need satisfaction and need frustration. *Frontiers in Psychology*, 8, 1755.
<https://doi.org/10.3389/fpsyg.2017.01755>
- Vogel, E. A., Rose, J. P., Roberts, L. R., & Eckles, K. (2014). Social comparison, social media, and self-esteem. *Psychology of Popular Media Culture*, 3(4), 206-222.
<https://doi.org/10.1037/ppm0000047>
- Wagstaff, D., Wolf, N., & Smith, N. (2024). Comparing, competing, and the good mum ideology—Maternal well-being in the context of social media. *Evolutionary Behavioral Sciences*. Advance online publication.
<https://doi.org/10.1037/ebs0000348>
- Williamson, T., Wagstaff, D. L., Goodwin, J., & Smith, N. (2023). Mothering ideology: A qualitative exploration of mothers' perceptions of navigating motherhood pressures and partner relationships. *Sex Roles*, 88(1-2), 101-117.
<https://doi.org/10.1007/s11199-022-01345-7>
- Yoo, J., Miyamoto, Y., Evers, U., Lee, J., & Wong, N. (2021). Does materialism hinder relational well-being? The role of culture and social motive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2, 241-261.
<https://doi.org/10.1007/s10902-020-00227-7>
- Yu, G. B., Lee, D. J., Sirgy, M. J., & Bosnjak, M. (2020). Household income, satisfaction with standard of living,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moderating role of happiness materialism.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1, 2851-2872.
<https://doi.org/10.1007/s10902-019-00202-x>